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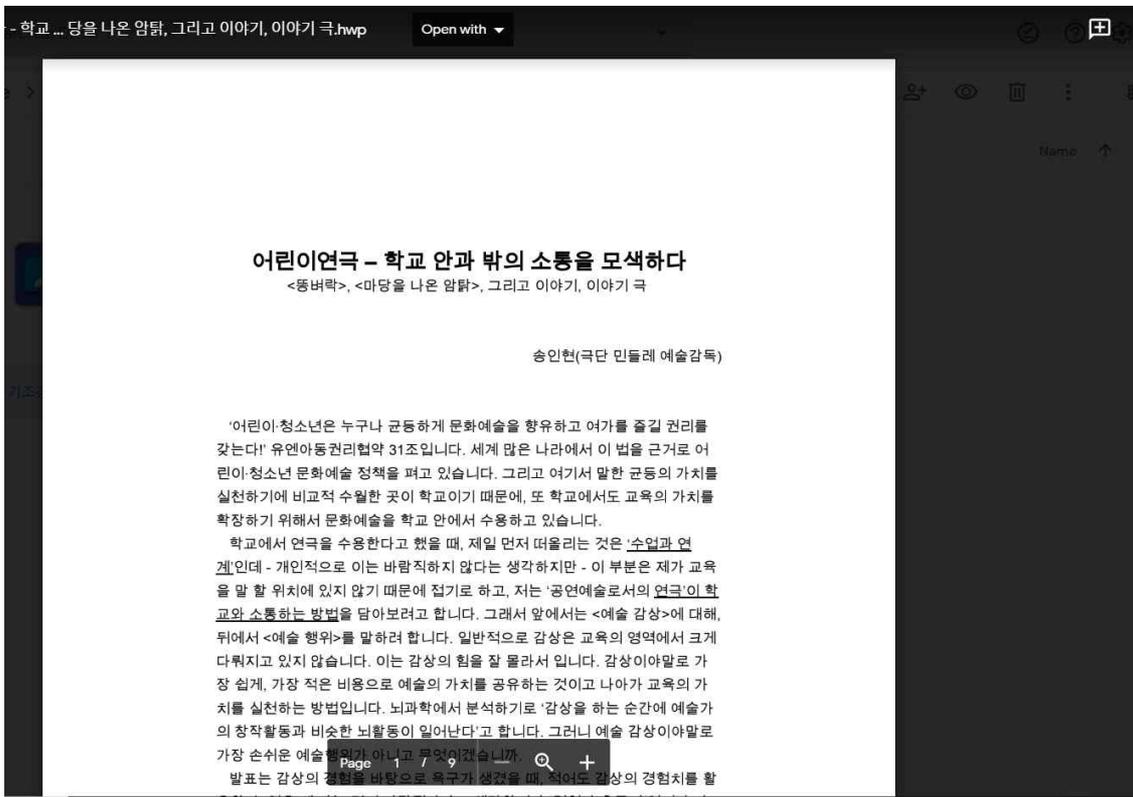
구글 문서 댓글 달기 방법 안내

구글 문서 댓글 달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안내드릴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본 학회의 구글 문서로 접속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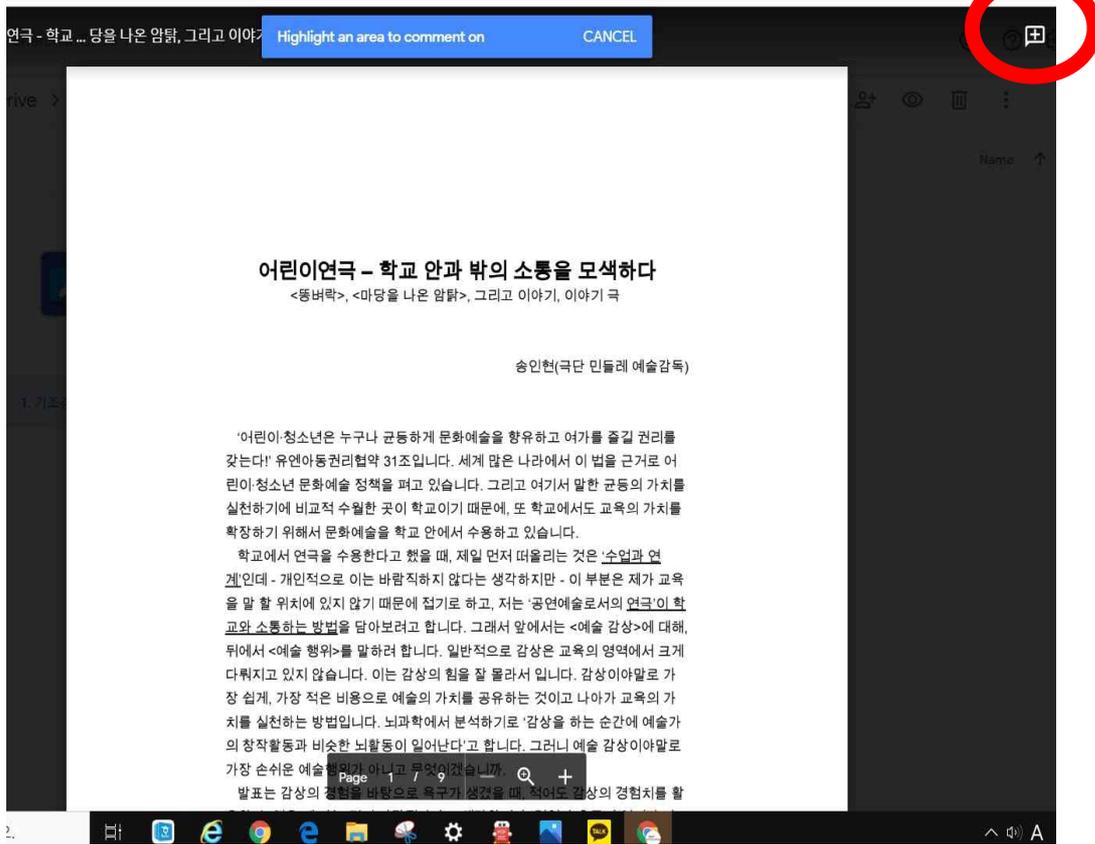


2. 파일을 클릭하면(또는 다운로드 하여) 발표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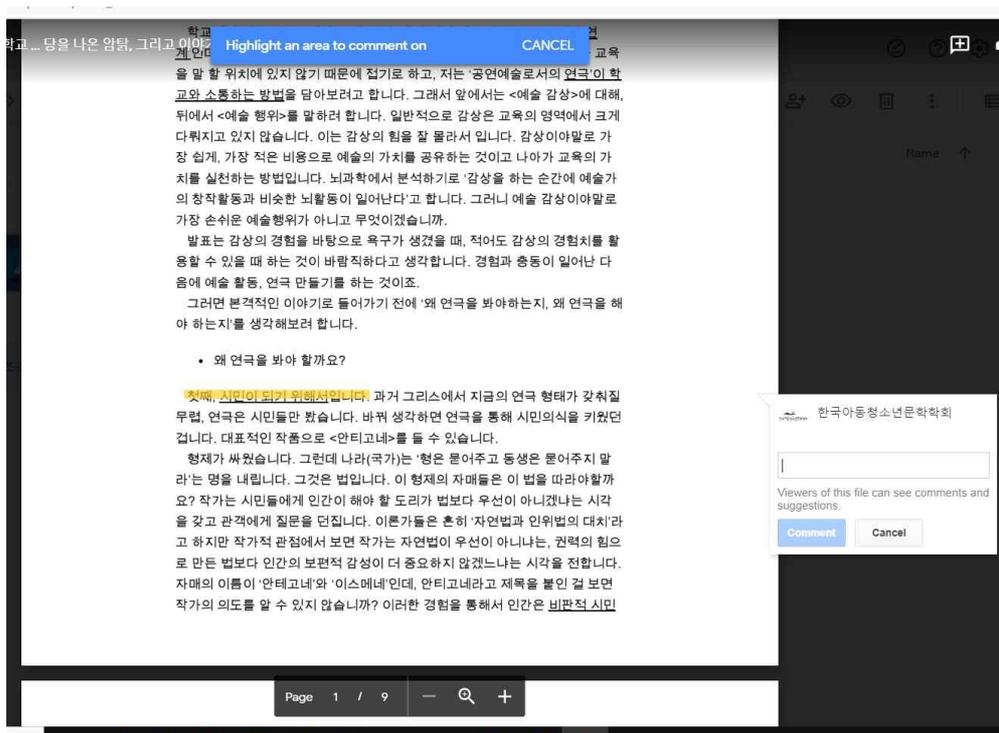


3. 의견을 달고 싶을 때에는 우측의 +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

lders/1sexipVULJXpb9m_VkLUmPifzhGD7MF7Z



4. 의견을 달 문장을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.



5. 우측 팝업된 창에 의견을 개진하고 저장합니다.(소속 성함을 밝혀주세요)

The screenshot shows a document viewer interface. The main document content is in Korean and discusses the concept of 'art' and 'education'. A blue highlight box is visible at the top of the document with the text "Highlight an area to comment on" and a "CANCEL" button. On the right side, a dark-themed comment box is open, titled "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" (Korean Children and Youth Literature Association). The comment box contains a text input field with the placeholder "시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?" (What is the definition of citizen?). Below the input field, there is a note: "Viewers of this file can see comments and suggestions." At the bottom of the comment box, there are two buttons: "Comment" and "Cancel". The document viewer also shows a page number "Page 1 / 9" and a search icon at the bottom.

학교... 담을 나온 알뜰, 그리고 이이...
교육
교육

을 말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집기로 하고, 저는 '공연예술로서의 연극이 학
교와 소통하는 방법'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에서는 <예술 감상>에 대해,
뒤에서 <예술 행위>를 말하려 합니다. 일반적으로 감상은 교육의 영역에서 크게
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. 이는 감상의 힘을 잘 몰라서 입니다. 감상이야말로 가
장 쉽게,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고 나아가 교육의 가
치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. 뇌과학에서 분석하기로 '감상을 하는 순간에 예술가
의 창작활동과 비슷한 뇌활동이 일어난다'고 합니다. 그러니 예술 감상이야말로
가장 손쉬운 예술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.
발표는 감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육구가 생겼을 때, 적어도 감상의 경험치를 활
용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경험과 충동이 일어난 다
음에 예술 활동, 연극 만들기를 하는 것이죠.
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'왜 연극을 봐야하는지, 왜 연극을 해
야 하는지'를 생각해보려 합니다.

- 왜 연극을 봐야 할까요?

첫째, 시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. 과거 그리스에서 지금의 연극 형태가 갖춰질
무렵, 연극은 시민들만 했습니다. 바꿔 생각하면 연극을 통해 시민의식을 키웠던
겁니다. 대표적인 작품으로 <안티고네>를 들 수 있습니다.
형제가 싸웠습니다. 그런데 나라(국가)는 '형은 묻어주고 동생은 묻어주지 말
라'는 말을 내립니다. 그것은 법입니다. 이 형제의 자매들은 이 법을 따라야할까
요? 작가는 시민들에게 인간이 해야 할 도리가 법보다 우선이 아니겠냐는 시각
을 갖고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이론가들은 흔히 '자연법과 인위법의 대치'라
고 하지만 작가적 관점에서 보면 작가는 자연법이 우선이 아니냐는, 권력의 힘으
로 만든 법보다 인간의 보편적 감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전합니다.
자매의 이름이 '안테고네'와 '이스메네'인데, 안티고네라고 제목을 붙인 걸 보면
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**비판적 시민**

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

시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?

Viewers of this file can see comments and suggestions.

Comment Cancel

Page 1 / 9